

중학생의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과 성격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조 한 익 (한양대학교)

이 소 영[†](한양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진로탐색유형과 성격요인(16PF),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의 특징을 파악하고, 각기 다른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진로탐색에서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등 6개의 유형을 기본으로 1코드, 2코드, 3코드 등의 조합으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6개의 유형이 모두 낮거나 높은 경우, '중다' 진로탐색유형 성향이 있을 학생들을 고려하여 실제로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군집분석을 통해 파악된 5개 집단을 구분하는 성격요인들이 무엇인지 판별분석을 통해 집단별 특성을 알아보고, 집단 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중학생 273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16성격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한 뒤,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군집분석, 판별분석,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탐색 유형 프로파일에 따른 5개의 군집은 '다흥미', 'RIA현저', 'ASE현저', 'R현저', '저흥미' 등의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5개의 진로탐색 유형 프로파일 집단을 구분하는 성격요인으로 도덕성, 대담성, 민감성의 순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제어 : 진로탐색유형, 16PF,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군집

[†] 교신저자 : 이소영,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kykyso@hanmail.net

I. 서 론

장자에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을 것이고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할 것이다(種瓜得瓜 種豆得豆.)’ 라는 말이 있다. 이는 타고난 성격에 따라 그에 걸맞은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개인은 자신의 특성과 환경이 갖고 있는 특성이 유사한 분야를 선택해서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거나(박동건 · 김성훈 · 허영운, 1999; 이종승, 2003; Hogan & Blake, 1996), 개인의 성격특성을 진로와 관련시켜 직업흥미와 진로발달을 연구한 Holland(1985a, 1997)의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개정된 중학생들의 교육과정에는 창의적 활동에 진로활동을 포함시켜서, 적성, 능력, 흥미 등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는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이 또한 개인의 특성과 진로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현림, 김순미(2007)와 Isaacson과 Brown(2000)은 진로지도가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학문과 지식을 포함한 교육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윤미선(2009)은 중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과 개인적 특성 등을 탐색하여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시험해 보는 시기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직업의식이 발달되고,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장점보다 단점이 부각되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또 중학생들은 확고한 신념이 없이 타인의 의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동조 행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중학생들에게 자신의 특성을 바르게 알고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직업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진로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Seligman(1994)과 Sharp(1996), Zunker(2002) 등은 중학교 진로지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학생의 장점과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직업탐색에 사용할 수 있는 진로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교육 및 직업 목표와 연계시키는 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학생들의 진로지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의 진로탐색은 Holland의 진로성격유형 검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Holland(1996)는 개인의 성격과 직업 환경을 여섯 개의 유형, 즉 실재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기업형(Enterprising), 관습형(Conventional)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여섯 개의 유형을 기본으로 두 자리 조합이나 세 자리 조합으로 더욱 세분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진로탐색을 RIASEC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만 선택하는 1코드, 두 개의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2코드, 세 가지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3코드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Holland의 RIASEC 육각형 모형에서 인접한 유형들(RI, IA, AS, SE, EC)과 대립되는 유

형들(RS, IE, AC)의 차이를 살펴보기 어렵다. 또 실제 학생들이 한 가지 유형에서만 현저를 보이는 경우, 두 가지 유형에서 현저를 보이는 경우, 여러 유형에서 현저를 보이는 경우, 긍정 응답률은 높지만 유형의 현저를 보이지 않는 경우, 긍정응답률이 낮으면서 유형의 현저를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기존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이고 적합한 진로지도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들을 군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군집분석을 통해 진로탐색 유형의 프로파일을 구분하려 한다. 또 학생들의 성격 특성이 진로탐색 유형 프로파일 집단의 차이를 얼마나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중학생들의 성격요인과 관련된 진로탐색 유형들의 특성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진로탐색 유형을 판별하는 성격요인의 차이를 밝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진로탐색 유형 프로파일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 5개 집단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진로탐색에서 전반적으로 흥미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에 대해 각각에 적합한 진로지도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을 성취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진로탐색유형과 16성격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군집분석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진로탐색 유형 프로파일 집단 수와 각 집단의 진로탐색유형 구성과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집단을 판별하는 성격요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5집단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진로탐색검사는 특정 직업군의 직업이나 활동에 대한 선호도의 패턴이 개인의 선호도와 일치 하는지 재는 Strong(1943)식의 직업흥미검사(SVIB)와 이것을 보다 발전시킨 Strong-Campbell의 직업 흥미검사(SCII), 특정 직업군에서 나타나는 동질적 내용의 활동들로 구성되는 문항들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Kuder(1965)식의 직업흥미검사, 개인의 성격과 직업생활의 유형을 분석하여 여섯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Holland(1985a, 1985b)식의 직업흥미검사(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 VPI) 및 자기탐색검사(Self-Directed Search: SDS) 등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Logue(2005)는 여러 진로탐색검사가 있지만 Holland의 직업흥미유형 이론이 독특하고 폭넓게 응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Holland(1997)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생활환경은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의 여섯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알맞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고, 또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 실재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으로 이루어진 RIASEC 육각형 모형에서 인접할수록 높은 일관성을 나타내며, 개인이나 환경이 잘 규정된 정도에 따라 차별성이 나타나고, 개인과 환경의 목표, 흥미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체성이 나타나는지, 성격과 환경이 일치하는지 등의 중요개념을 제안하였다. Holland의 육각형 모형에서 여섯 개 유형의 특성은 이종승(2003)이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실재형은 기계적 소질이 많고 물질지향적·구체적·실용적이며, 기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한다. 반면에 사고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혼자 일하기를 좋아한다. 단순하고 소박하며 내성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성격특성을 보인다. 탐구형은 자연현상이나 과학 분야의 탐구적 일을 선호하고 아이디어를 강조하며 사회적 모임에 무관심하고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다. 분석적·이지적·회의적·비관적·정확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특성을 보인다. 예술형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일이나 관습에 순응하는 것을 싫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직관적·독창적·개방적·감각적·상상력이 풍부한 성격특성을 보인다. 사회형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가르치기, 안내하기, 위로하기 등의 역할을 선호한다. 사교적·관대한·협력적·공감적·책임감·온정적·참여성이 있는 성격특성을 보인다. 기업형은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거나 여러 사람을 조정하는데 능숙하다. 정력적·진취적·야심적·외향적·과시적·욕심이 많고 자신이 있는 성격특성을 보인다. 관습형은 일정하게 규정된 지침에 따라 자료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업무에 능숙하다. 실용적·효율적·양심적·검소하나 상상력이 부족하고 조심성이 많은 성격특성을 보인다.

진로탐색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성격검사가 다양한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전형적인 반응을 얻어야 하는데(Hogan, 1983), Holland의 진로탐색유형과 성격과의 상관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다소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eraino와 Willerman(1983)은 실재형·탐구형·사회형·기업형의 직업군과 성인 남성에게 16PF의 상관을 연구한 결과 기업형은 외향성, 탐구형은 인지적·독립적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Goh와 Leong(1993)은 Holland 유형과 Eysenck의 성격 이론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실재형과 신경증에서만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Hogan과 Blake(1996)는 성격 5요인 모형과 Holland 직업흥미유형의 상관을 연구하였는데, 외향성은 사회형·기업형과, 호감성은 사회형·기업형·실재형(-)과, 성실성은 관습형과, 개방성은 예술형·기업형과 관계있다고 하였다. Gottfredson, Jones, 및 Holland(1993)의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사회형·기업형, 개방성과 탐구형·예술형, 성실성과 관습형이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Schinka, Dye와 Curtiss(1997)는 5요인과 RIASEC 유형간의 관계 연구에서 외향성·호감성·개방성과 기업형·예술형 및 사회형 유형간의 연결패턴을 발견했지만, 실재형에 대해서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안창규(1996)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Holland의 직업흥미와 5요인 이론, MBTI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실재형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에서 5요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병임, 정순례(2003)는 전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BTI와 Holland 직업선호도 유형이 상관이 높다고 하였다. 최윤희(2011)의 중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인성검사와 Holland의 직업흥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동조성과 사회형, 책임감과 탐구형, 자기통제와 관습형, 자신감과 예술형이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 연구결과를 통해 성격검사와 진로탐색검사 간에 서로 지지해 주는 차원과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는 차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탐색유형을 군집분석 하였을 때 나타나는 집단들을 성격검사로 판별하여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에 대한 탐색과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이기학·이학주, 2000; 이현림·손종하·김성자·김순미, 2007). Betz와 Hackett(1986)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특정 학문 분야, 전공,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탐색 행동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Nauta, 2004). 이처럼 진로발달에 있어서 진로결정과 진로탐색행동에 대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이기학·이학주, 2000; 이은진, 2001; Betz, Hammond, & Multon, 200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발달 분야에 응용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Betz, Klein과 Taylor(1996)는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 진로결정 그리고 선택한 학문적 진로에서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 직업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최근 Holland(1997) 이론의 관점에서 성격과 진로 자기효능감 간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Nauta, 2004; Rottinghaus, Lindley, Green, & Borgen, 2002; Schaub & Tokar, 2005).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Blustein(198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많이 탐색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 Lenox와 Subich(1994)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trong 흥미검사 결과 실재형, 탐구형, 기업형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흥미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 개인에게 흥미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기효능감이 요구되며 일단 흥미가 발달되면 효능감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Luzzo(199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태도 성숙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로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상관을 연구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적 확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은경 · 이혜성(2002)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영락(2010)의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다고 하였다. 김현정(2011)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습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나, 예술형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개인의 진로에 갖는 태도, 진로탐색에 대해서 유의미한 설명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집분석으로 나타나는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집단에 대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의 차이를 탐색해 보고, 이를 진로지도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중학교 학생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145명(53.11%)이었으며, 여학생은 128명(46.89%)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설문에 조금 더 많이 참가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가. 진로탐색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안창규(1996b)가 Holland(1985a)의 직업적 성격유형론에 바탕을 두고, 한국 학생들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제작하여 타당화한 진로탐색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유능감’, ‘활동’, ‘성격’, ‘직업’, ‘능력평정’ 등의 하위요인들을 측정한 후, 종합하여 직업적 성격인 실재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기업형(Enterprising), 관습형(Conventional)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직업적 성격유형을 찾아내도록 되어있다.

유능감 검사는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66개의 문항, 활동 검사는 어떤 종류의 일이나 활동을 하기 좋아하는지 또는 하고 싶은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66개의 문항, 성격 검사는 각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성격특성을 기술한 문항과 자기 성격과의 닮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72개의 문항, 직업 검사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개인이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78개의 문항, 능력평정

〈표 1〉 성격특성 내용과 신뢰도 계수

범주	범주	내용	α
A요인	온정성	다정하고, 온정적이며, 사교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78
	냉정성	냉정하고, 비사교적이며, 비판적이고 무심한, 초연한 성격	
C요인	강한 자아강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하며, 침착하고, 변함없는 갈등을 잘 극복하는 성격	.79
	약한 자아강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	
E요인	지배성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지배적이고 경쟁적인 성격	.77
	복종성	의존적이고 추종적이며 동조적이고 온건한 성격	
F요인	정열성	정열적이고 말이 많고, 쾌활하며, 낙천적이고 적극적이며 솔직하고 호의적인 성격	.77
	신중성	말이 없고 소극적이며 신중하여 감추는 성격	
G요인	강한 도덕성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하고 참아내는 성격	.78
	약한 도덕성	비양심적이며 편의적이고 경솔하며 변덕스런 성격	
H요인	대담성	대담하고 모험적이며 배짱있고 우호적이며 적극적 성격	.78
	소심성	억제하는 수줍은 감상적인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	
I요인	민감성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의존적이며 여성적인 성격	.80
	강인성	강인하고 둔감하며 실제적이며 남성적이고 고집센 성격	
M요인	사변성	사색하기 좋아하고, 세상물정에 어둡고, 관념적, 호기심이 많고, 공상을 즐기는 성격	.771
	실제성	현실적이며 행동적이고 실제적인 성격	
N요인	실리성	약삭 바르고 실리적이며 기민하며, 재치있고 타산적이며 야심적인 성격	.79
	순진성	단순하고 순진하며, 자연스럽고 분별없는 뭇 모르는 성격	
O요인	자책성	확신감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며,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죄책감을 갖는 성격	.82
	편안함	확신하는 편안한 쾌활한 후회없는 무례한 성격	
Q1요인	진보성	진보적이고 실험적이며,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부선적이고 반항적인 성격	.78
	보수성	보수적이고 옛사상을 존중하며 전통을 지키는 관습적인 성격	
Q2요인	자기결정	자기중심적이고, 자립적이며, 혼자판단하고 결정, 행동하는 성격	.81
	집단의존	참여적이고 건전한 추종, 남의 결정에 따르는 집단의존적인 성격	
Q3요인	강한자기통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하는, 억제와 현실적 대처와 관련된 강박적인 성격	.77
	약한자기통제	자기통제 잘 못하는, 불안한, 느슨한, 사회적 규율 무시하는 성격	
Q4요인	불안성	불안하며 긴장되고 초조하며, 쉽게 화내며 좌절되는 성격	.82
	이완성	평온하며 이완된, 침착한 안정된 성격	

은 각 유형별 능력과 기능의 측면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 정도를 평정하는 것으로 14개의 문항으로 되어있다. 총 문항은 296개이며, 유능감·활동·성격·직업 검사는 진위형 응답방식, 능력평정은 ‘낮음’부터 ‘높음’까지 7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는 표준화된 T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273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유능감 .66, 활동 .69, 성격 .65, 직업검사 .67, 능력평정 .66 등이고, 실재형 .73, 탐구형 .64, 예술형 .67, 사회형 .65, 기업형 .62, 관습형 .66 등이다.

나. 16성격요인 척도(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16PF)

16성격요인 척도는 인간의 수많은 성격 특성들을 중심으로 요인 분석법을 통해 성격특성을 추출하여 제작된 Cattell의 16성격요인검사(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16PF)를 김정규(1991)가 표준화한 한국판 성격요인검사로, 1999년에 16가지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165문항 중에서 지능요인(B요인)을 측정하는 15문항과 불신감요인(L요인)을 측정하는 10문항을 제외하고 14개 요인에 대한 140문항으로 개정된 검사이다. 이 검사는 14가지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40문항의 5점 척도(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는 양극화 척도이며(성창훈, 1997), 각 요인에서 표준화된 T점수가 35이하이면 낮은 수준, 65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점수를 얻는 것으로 본다(염태호, 김정규, 2003).

14개의 하위요인의 성격특성과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표 1>과 같다.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Betz, Klein 및 Taylor(1996)가 단축형으로 개발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이은경(200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4개의 하위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직업정보 문항 6개, 목표설정 문항 11개, 계획수립 문항 5개, 문제해결 문항 3개 등 총 25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3이며, 하위영역별로 .86~.95이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 이다. 통계분석 방법은 진로탐색 유형과 성격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 간 관계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분류하고, 같은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학생간의 상이성

을 규명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에 대한 군집을 추출하기 위해 계층적 방법의 왈드법(Ward's method)과 비계층적 방법의 K-평균법(K-means)을 사용하였다. 먼저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 군집의 수와 초기 군집 중심을 결정하기 위해서 측도 간격을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로 지정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은 한 군집이 다른 군집의 내부에 포함되는 경우로 군집간의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각 학생의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의 속성이 유사할수록 유사성 거리는 가깝게 측정되고, 다른 학생간의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의 속성이 다를수록 유사성 거리는 멀게 측정된다. 군집중심(Centroid)간의 거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군집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왈드법의 결과 군집화 일점표, 수직 코드표(Vertical Icode) 및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군집의 개수를 확인하고, 2차로 군집씨앗(seed point)을 이용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덴드로그램을 확인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군집 개수를 적당화한 후, 각 군집은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의 특징에 따라 군집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군집에서 나타난 집단을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16성격요인을 투입하여, 성격 하위요인에 의해 집단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집단별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진로탐색유형과 성격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유형과 성격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실재형과 성격 하위요인 간에는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r=.20, .20, .16, p<.01$), 실리성, 자기통제($r=.15, .13, p<.05$))에서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민감성($r=-.19, p<.01$)에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형은 지배성, 도덕성, 대담성, 사변성, 실리성, 진보성, 자기통제($r=.20, .27, .17, .20, .26, .28, .22, p<.01$)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예술형은 지배성, 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사변성, 실리성, 자기통제($r=.25, .17, .24, .22, .22, .17, .23, p<.01$), 온정성, 자아강도, 정열성($r=.13, .14, .15, p<.05$))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사회형은 온정성, 지배성, 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사변성, 실리성, 자기통제($r=.27, .23, .18, .23, .21, .25, .23, .26, p<.01$), 자아강도, 정열성, 자기통제($r=.15, .15, p<.05$))와 정적상관이, 자기결정($r=-.15, p<.05$)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기업형은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실리성, 진보성, 자기통제($r=.46, .31, .43, .47, .24, .55, .38, .34, .31, p<.01$), 사변성($r=.14, p<.05$))와 정적상관이, 자책성($r=-.16, p<.01$)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관습형은 도덕성, 실리성, 자기통제($r=.27, .20, .24$).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N=28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혁신재형	1																				
2	I형구형	.19**	1																			
3	A.예술형	.13*	.31**	1																		
4	S.사회형	.11	.27**	.45**	1																	
5	T.기술형	.18**	.42**	.36**	.43**	1																
6	C.관공형	.14*	.45**	.16**	.26**	.42**	1															
7	순경성	.01	-.02	.13*	.27**	.46**	.03	1														
8	자아강도	.07	.07	.14*	.13*	.31**	.03	.49**	1													
9	지배성	.20**	.20**	.25**	.23**	.43**	.02	.44**	.40**	1												
10	정열성	.20**	.04	.13*	.13*	.47**	.01	.71**	.31**	.63**	1											
11	도덕성	.12	.27**	.17**	.18**	.26**	.27**	.41**	.41**	.54**	.25**	1										
12	대담성	.16**	.17**	.24**	.23**	.33**	.01	.63**	.62**	.62**	.68**	.33**	1									
13	인감성	-.19**	.10	.22**	.21**	.07	.11	.12*	.06	.16**	-.02	.23**	.03	1								
14	사변성	.10	.20**	.22**	.23**	.14*	-.01	.16**	.12*	.44**	.23**	.38**	.27**	.46**	1							
15	원리성	.13*	.26**	.17**	.23**	.38**	.20**	.42**	.36**	.53**	.36**	.40**	.38**	.18**	.18**	1						
16	자혜성	.04	.02	-.03	-.08	-.16**	-.01	-.21**	-.33**	.08	-.06	-.04	-.37**	.24**	.24**	.24**	1					
17	친모성	.09	.28**	.11	.07	.34**	.05	.23**	.22**	.50**	.41**	.22**	.33**	.13*	.28**	.27**	.13*	1				
18	자기결정	.09	.02	.04	-.13*	-.10	-.09	-.22**	-.04	.17**	-.03	.10	.00	.13*	.29**	-.06	.20**	.24**	1			
19	자기통제	.13*	.22**	.23**	.26**	.31**	.24**	.28**	.40**	.35**	.42**	.27**	.42**	.40**	.49**	-.06	.36**	.36**	.08	1		
20	융안성	.00	.03	-.06	-.03	-.08	-.01	-.14*	-.47**	.17**	.01	-.06	-.23**	.23**	.23**	-.07	.81**	.21**	.23**	-.07	1	
21	자기표현광	.03	.33*	.16**	.24**	.33**	.29**	.31**	.42**	.33**	.28**	.43**	.42**	.17**	.34**	-.21**	.33**	-.04	.49**	-.20**	.49**	1

*p < .05 **p < .01

p<.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r=.16, .24, .35, .29. p<.01), 탐구형(r=.35. p<.05)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2.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집단 간의 비교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에 따른 군집을 추출하기 위해 계층적 방법의 왈드법과 비계층적 방법의 K-평균법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 따라 분류된 5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군집 간 변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군집이 잘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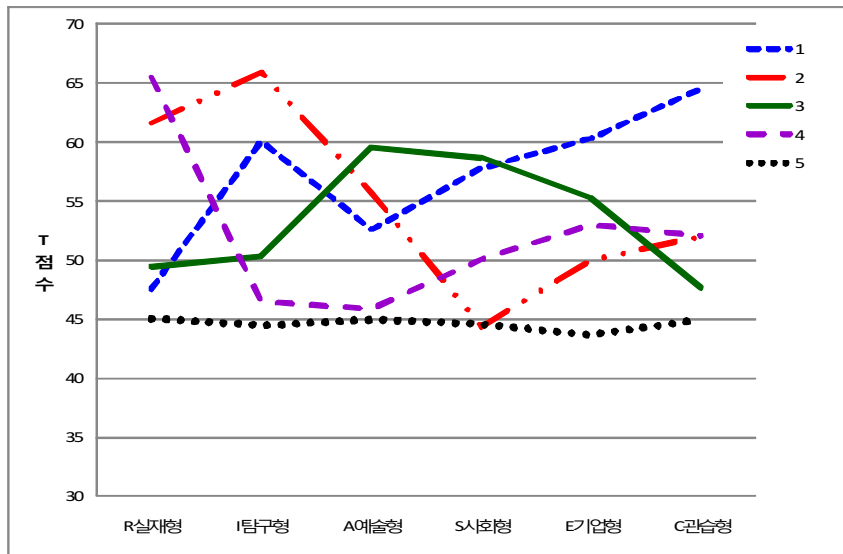
<표 3>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집단

집단	N(%)	R실재형 M(SD)	I탐구형 M(SD)	A예술형 M(SD)	S사회형 M(SD)	E기업형 M(SD)	C관습형 M(SD)
1	46(16.8)	47.57(8.13)	60.03(8.02)	52.51(9.96)	57.78(7.86)	60.21(8.20)	64.45(6.49)
2	24(8.8)	61.55(9.38)	65.92(6.20)	55.67(11.21)	44.35(8.42)	49.92(8.95)	51.94(11.26)
3	52(19.0)	49.43(7.76)	50.32(7.64)	59.52(7.73)	58.63(6.67)	55.21(8.64)	47.60(5.87)
4	32(11.7)	65.46(6.59)	46.48(6.47)	45.79(6.63)	50.00(9.27)	52.95(9.08)	52.00(7.96)
5	119(43.6)	45.04(5.93)	44.41(6.25)	44.97(7.30)	44.49(7.33)	43.67(6.47)	44.89(6.77)
합계	273(100)	50.15(10.08)	50.30(10.05)	50.05(10.04)	50.05(9.91)	50.29(10.04)	50.16(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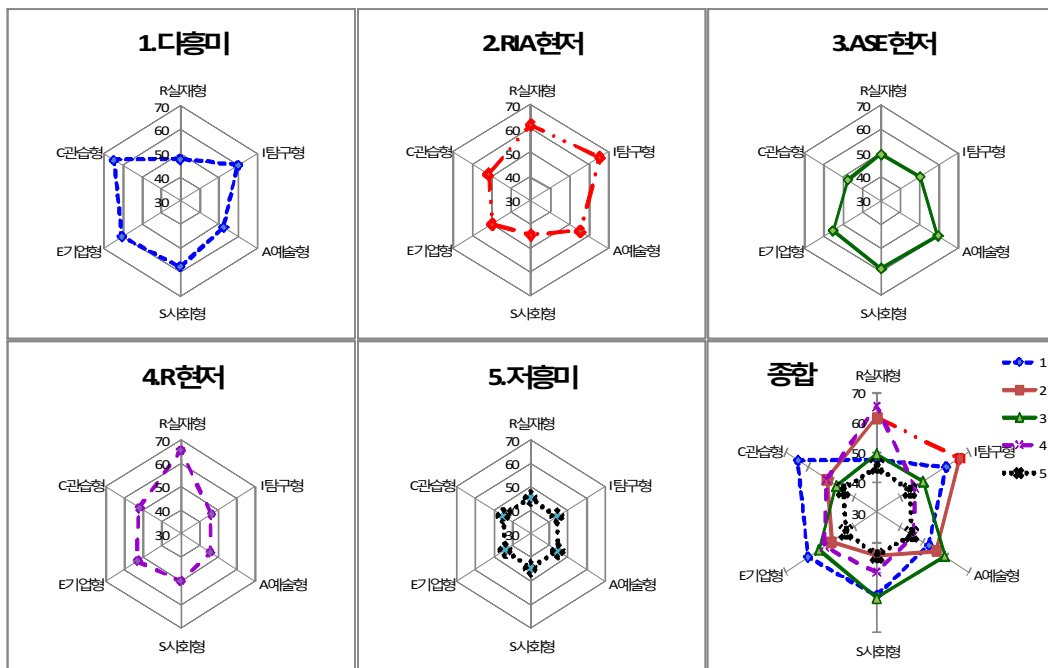
각 군집은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단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1집단은 탐구형·예술형·사회형·기업형·관습형 등 5가지 진로탐색유형이 평균보다 높은 점수로 구성된 집단으로 ‘다흥미’, 2집단은 실재형·탐구형·예술형이 높은 집단으로 ‘RIA현저’, 3집단은 예술형·사회형·기업형이 높은 집단으로 ‘ASE현저’, 4집단은 실재형만 높은 집단으로 ‘R현저’, 5집단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집단으로 ‘저흥미’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5개 집단이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유형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만 높은 경우, 두 개가 높은 경우, 세 개가 높은 경우, 네 개가 높은 경우, 모두 낮은 경우 등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5개의 집단을 Holland의 육각형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다흥미’ 집단은 탐구형·예술형·사회형·기업형·관습형 등 5개의 유형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다. ‘RIA현저’ 집단은 인접해 있는 실재형·탐구형·예술형 등 3개의 유형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다. ‘ASE현저’ 집단은 인접해 있는 예술형·사회형·기업형 등 3개의 유형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다. ‘R현저’



(그림 1) 5개 집단의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 척도



(그림 2)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집단의 육각형모형

집단은 실재형 유형만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다. ‘저흥미’ 집단은 모든 유형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진로탐색유형은 학생에 따라 여러 프로파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성격요인의 특성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집단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을 발견하고, 성격 하위요인 변수에 의해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집단의 동질성과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5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개의 집단별 성격 하위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집단평균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Wilk's λ* 값과 *F* 값이 제시되어 있는데, *Wilk's λ*는 집단내 분산(집단내 분산+집단간 분산)의 비율로서 집단간 분산이 집단내 분산에 비

〈표 4〉 5집단 간의 성격요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분산분석

집단유형 변인	다흥미 (N=46)	RIA현저 (N=24)	ASE현저 (N=52)	R현저 (N=32)	저흥미 (N=119)	<i>Wilk's</i> λ	<i>F</i>
	M(SD)	M(SD)	M(SD)	M(SD)	M(SD)		
온정성	52.93(11.68)	47.75(12.79)	56.92(12.26)	52.84(9.46)	48.55(12.75)	.93	5.17*
자아강도	52.30(13.49)	49.29(11.18)	54.63(11.84)	57.41(11.39)	48.87(12.51)	.94	4.27*
지배성	51.89(10.64)	49.96(10.29)	53.65(9.57)	52.97(11.50)	47.62(10.32)	.94	4.14*
열정성	50.85(11.83)	50.75(12.45)	52.96(10.18)	54.34(8.36)	48.09(11.10)	.96	3.12
도덕성	55.72(12.28)	48.96(9.92)	50.00(9.87)	53.34(11.20)	46.97(10.46)	.91	6.49**
대담성	52.41(10.95)	52.25(11.38)	56.17(10.08)	54.47(10.51)	47.86(9.56)	.90	7.35**
민감성	51.33(10.31)	46.13(9.00)	52.06(8.45)	44.03(9.71)	47.28(9.56)	.92	5.51**
사변성	48.359(11.07)	48.75(6.70)	50.38(8.91)	45.16(9.56)	44.92(10.69)	.95	3.43*
실리성	51.20(9.35)	50.42(7.71)	51.13(10.16)	51.63(7.61)	45.59(10.62)	.93	5.46**
자책성	47.54(12.66)	49.58(12.12)	45.56(10.10)	44.28(10.00)	48.29(10.87)	.98	1.42
진보성	49.54(12.48)	50.79(11.90)	48.13(9.42)	46.75(11.11)	44.68(10.05)	.96	3.06
자기결정	47.89(10.91)	50.29(9.30)	48.13(9.85)	51.38(9.89)	49.70(9.73)	.99	3.06
자기통제	53.59(12.90)	47.25(8.11)	51.67(10.53)	52.31(10.75)	45.48(11.58)	.91	6.37**
불안성	49.28(13.29)	49.13(12.26)	45.92(10.17)	45.41(11.44)	48.59(11.22)	.98	1.10

* $p < .01$ ** $p < .001$

해 클수록 0에 가까워지며, F값과는 반대방향을 가지게 되어있다. 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실리성, 자기통제($F=6.49, 7.35, 5.51, 5.46, 6.37, p<.001$),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사변성($F=5.17, 4.27, 4.14, 3.43, p<.01$)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열정성, 자책성, 진보성, 자기결정($F=3.12, 1.42, 3.06, 3.06, 1.10$)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성격 하위요인에서 집단차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격 하위요인 중 어떤 변수가 5개 집단을 잘 판별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추후분석으로 5개 집단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유의한 판별함수가 산출되었다. 유의도 검증결과를 보면 제1 판별함수는 $Wilk's \lambda = .901$ 으로 $p<.000$ 수준에서 유의했고, 제2 판별함수는 $Wilk's \lambda = .834$ 로 $p<.000$ 수준에서 유의했고, 제3 판별함수는 $Wilk's \lambda = .775$ 로 $p<.00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을 분류하는 세 개의 판별함수는 모두 예측력이 있는 판별함수임을 알 수 있다.

공분산행렬의 동질성을 검증한 Box's M값이 28.95, F값이 1.17, 유의확률이 0.26으로 유의수준 0.01보다 크게 나타나 공분산의 동일성이 검증되어 판별모델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다흥미, RIA현저, ASE현저, R현저, 저흥미)의 차이를 만드는 성격 하위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표 5〉 성취목표의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및 구조행렬

표준화된 성분 판별함수 계수				구조행렬			
변인	함수			변인	함수		
	1	2	3		1	2	3
온정성	.338	-.411	-.054	대담성	.596*	.336	.511
자아강도	-.367	.125	.348	민감성	.546*	-.286	-.338
지배성	.147	-.017	.127	온정성	.542*	.073	.286
정열성	-.428	.280	.148	사변성	.470*	-.017	.048
도덕성	-.224	.900	-.854	지배성	.451*	.308	.298
대담성	.476	.024	.369	자기결정	-.197*	.110	.194
민감성	.426	-.396	-.368	도덕성	.379	.705*	-.239
사변성	.233	-.239	.189	자기통제	.525	.529*	.026
실리성	.117	.409	.231	실리성	.472	.509*	.218
자책성	-.188	-.275	.390	자아강도	.309	.387	.453*
진보성	.226	.105	-.433	정열성	.296	.337	.410*
자기결정	-.338	.061	.407	불안성	-.097	-.037	-.372*
자기통제	.415	-.262	.308	자책성	-.142	-.141	-.304*
불안성	-.084	.367	-.469	진보성	.332	.303	-.092

* 각 변수와 임의의 판별함수 간의 가장 큰 절대 상관행렬

를 평가하였다. 집단의 판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계수와 구조행렬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판별변인과 정준판별함수간의 상관 계수를 나타내는 구조행렬에 의하면 함수 1에서 구조행렬의 절대값이 가장 큰 ‘대담성’이 함수 1의 집단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다음으로 민감성, 온정성, 사변성, 지배성에서 정적으로, 자기결정에서 부적으로 순서대로 집단차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수 2에서는 도덕성, 자기통제, 실리성의 순으로 집단차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수 3에서는 자아 강도, 정열성에서 정적으로, 불안성, 자책성의 하위요인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탐색유형 함수 1에 대한 집단 중심점은 ‘다흥미’(0.355), ‘RIA현저’(-0.071), ‘ASE현저’(0.528), ‘R

<표 6> 5집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결과

합계(M/SD)(49.31 / 10.11)	집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평균차
1. 다흥미 (54.33 / 9.97)	2	4.91
	3	2.73
	4	3.51
	5	8.38**
	1	-4.91
2. RIA현저 (49.42 / 10.02)	3	-2.18
	4	-1.40
	5	3.48
	1	-2.73
3. ASE현저 (51.60 / 9.70)	2	2.18
	5	5.65*
	4	.78
	1	-3.51
4. R현저 (50.81 / 9.03)	2	1.40
	3	-.78
	5	4.87
	1	-8.38**
5. 저흥미 (45.94 / 9.58)	2	-3.48
	3	-5.65*
	4	-4.87

* $p < .01$ ** $p < .001$

현저'(.090), '저흥미'(-.378)로 함수 1은 '다흥미', 'ASE현저', 'R현저' 집단과 'RIA현저', '저흥미' 집단을 구분하는 함수이다. 함수 2에 대한 집단 중심점은 '다흥미'(-.251), 'RIA현저'(-.073), 'ASE현저'(.373), 'R현저'(-.572), '저흥미'(.103)로 '다흥미', 'RIA현저', 'R현저' 집단과 'ASE현저', '저흥미' 집단을 구분하는 함수이다. 함수 3에 대한 집단 중심점은 '다흥미'(.374), 'RIA현저'(-.244), 'ASE현저'(-.128), 'R현저'(-.318), '저흥미'(.046)로 '다흥미', '저흥미' 집단과 'RIA현저', 'ASE현저', 'R현저' 집단을 구분하는 함수이다.

4.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에 따른 집단 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차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에 따른 5개의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이러한 차이가 어떤 집단 간의 차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5개 집단 간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F=7.66, p<.0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흥미' 집단과 '저흥미' 집단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 차는 8.38이고,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ASE현저' 집단과 '저흥미' 집단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 차는 5.65이고,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진로탐색 6개 유형에서 대부분 높은 프로파일을 보인 '다흥미' 집단과 모두 낮은 '저흥미' 집단은 일관되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진로탐색유형과 성격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군집분석을 통하여 진로탐색유형을 RIASEC 6개 유형의 프로파일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단의 빈도수를 알아보고,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5집단 간에 성격 특성으로 밝혀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유형과 성격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실재형과 성격 하위요인 간에는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 실리성, 자기통제에서 의미있는 정적 상관이, 민감성에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형은 지배성, 도덕성, 대담성, 사변성, 실리성, 진보성, 자기통제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예술형은 지배성, 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사변성, 실리성, 자기통제, 온정성, 자아강도, 정열성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사회형은 온정성, 지배성, 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사변성, 실리성, 자기통제, 자아강도, 정열성, 자기통제와 정적상관이, 자기결정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기업형은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

열성, 도덕성, 대담성, 실리성, 진보성, 자기통제, 사변성과 정적상관이, 자책성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관습형은 도덕성, 실리성, 자기통제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박동진 외(1999)의 진로탐색유형과 5요인 성격모형과의 연구에서 실재형은 성격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적다고 하였고, 안창규(1996b)의 R(실재형)유형의 성격이 NEO-PI-R이나 MBTI 등과의 상관관계에서 특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문승태와 강남규(2005)의 중학생의 성격과 Holland의 직업흥미유형과의 연구에서 실재형에 대한 성격요인의 설명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성격요인과의 상관에서 실재형이 지배적이고 경쟁적이며 정열적이고 적극적이며 모험적이며 실리적이거나 민감하거나 의존적이지 않다는 성격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 탐구형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나 실재형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현정(2011)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탐구형(.343)과 상관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는 일치하나 사회형과 기업형과의 상관이 낮았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문승태와 장선철(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기업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불일치는 진로탐색유형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진로태도성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기학, 이학주, 2000, Hartman & Betz, 2007).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하여 진로탐색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프로파일의 특징에 따른 집단을 분석한 결과, 5가지 진로탐색유형이 높은 점수로 구성된 ‘다흥미’ 집단, 실재형·탐구형·예술형이 높은 ‘RIA현저’ 집단, 예술형·사회형·기업형이 높은 ‘ASE현저’ 집단, 실재형만 높은 ‘R현저’ 집단,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저흥미’ 집단 총 5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유형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만 높은 경우, 두 개가 높은 경우, 세 개가 높은 경우, 네 개가 높은 경우, 모두 낮은 경우 등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진로탐색에서 RIASEC 유형을 1코드, 2코드, 3코드로 해석하는 것이 개인별 진로지도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방향과 내용을 새롭게 탐색해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5집단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판별분석에서 성격 하위요인 중 ‘대담성’이 함수 1의 집단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담성’이 높다는 것은 모험적이고 우호적이며 적극적 성격을 의미하고, 낮으면 억제하고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을 의미한다. ‘대담성’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다흥미’와 ‘ASE현저’ 집단에서 높고, ‘저흥미’ 집단에서 낮은 것을 통해 판별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수 2의 집단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덕성’이었다. ‘도덕성’이 높다는 것은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성실하고 참을성이 많은 성격을 의미하며, 낮으면 경솔하고 변덕스런 성격을 의미한다. ‘도덕

성'이 사물보다 사람에 더 관심이 많은 'ASE현저'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함수 3의 집단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아강도'였다. '자아강도'가 높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하며 침착하고 변함없는 성격을 의미하고, 낮으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의미한다. '자아강도'가 여러 가지 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다흥미'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인 것을 통해 '다흥미' 집단이 진로 미결정이라기보다 다양한 능력과 영역을 요구하는 현대적 직업의 특성 때문이 아닌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집단의 차이를 성격요인으로 판별한 결과는, Tokar와 Swanson (1995)가 RIASEC 유형을 성격 5요인으로 판별분석 한 연구에서 개방성과 외향성 요인들이 판별력이 높은 변인이었다고 한 결과처럼 진로탐색유형 검사가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에 따른 5개의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에서 '다흥미' 집단과 '저흥미' 집단, 'ASE현저' 집단과 '저흥미' 집단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탐색과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기의 능력과 개인적인 직업적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이은경, 이혜성, 2002; Solberg et al, 1995). 김병숙 · 김수정 · 김보인(2009)의 연구에서 대비되는 탐구형과 기업형이 함께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전문성과 일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고, 일관성이 없거나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Holland 이론의 문제인지, 학생들의 교육환경적 특성의 문제인지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형에서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고 유사성을 보인 '다흥미' 집단과 '저흥미' 집단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차이를 고려해서 진로성숙 정도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군집분석을 통해 나타난 진로탐색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흥미를 보인 '다흥미' 집단은 진로탐색에서 RIASEC를 1코드, 2코드, 3코드로 표시해 진로를 판단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발견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진도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흥미' 집단이 자아강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직업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나타난 진로탐색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흥미를 보이지 않은 '저흥미' 집단은 이에 속하는 학생이 4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보아 아직 진로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을 예측할 수 있으며,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과 대학생 집단보다 진로태도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참조해 볼 때, 앞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진로지도에서 그 내용과

방향, 프로그램 설계와 실행에서 학생들이 실제 가지고 있을 ‘중다’ 진로탐색유형을 확인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에 필요한 진로지도의 내용을 제공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유형 및 성격요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는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지여서 응답자들의 자기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 친구와 같은 제 3자의 관찰과 평정도 함께 측정하여 자기인식 오류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을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만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로관련 행동은 사회경제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탐색유형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학생 개인의 성격특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같은 내적요인을 측정하고, 학습 환경과 같은 외적인 변인은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진로탐색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학생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별 집단을 탐색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목적 면에서 확인적인 성격보다 탐색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한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이나 다차원적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과 같은 보다 정교한 기법을 통해 상이한 진로탐색유형 프로파일을 보이는 집단의 수와 그 양상을 확인해 본 연구결과의 교차타당도(cross-validation)를 높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기영락 (2010).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와의 관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김병숙 · 김수정 · 김보인 (2009). 직업카드 분류 결과와 홀랜드 코드 간의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63-78.
- 김정규 (1991). 성격요인검사의 타당도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10(1), 76-97.
- 김현정 (2011). 진로성격유형에 따른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Holland 진로탐색검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문승태, 강남규 (2005). 중학생의 성격과 Holland의 직업흥미유형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8(1), 86-97.
- 문승태, 장선철 (2003). Holland의 직업성격유형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 상명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3), 101-115.
- 박동건, 김성훈, 허영운 (1999). Holland 흥미 모형과 5요인 성격 모형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2(1), 95-112.
- 성창훈 (1997). 성격의 측정 기법과 실제. 97 동계학술발표회, 87-114.
- 안창규 (1996). 진로탐색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1), 169-199.
- 염태호, 김정규 (2003). **16PF(다요인 인성검사)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국가이던스.
- 윤미선 (2009). 중학생의 진학계열 예측을 위한 동기변인의 성차-인문계 고등학교 진학 후 문과이과 선택 판별. **교육심리연구**, 23(1), 145-160.
- 이기학 ·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수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병임, 정순례 (2003). 전문대 여학생의 MBTI 성격 유형 및 Holland 직업선호도 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127-145.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경, 이혜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은진 (2001).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종승 (2003). Holland의 직업적 성격유형론 탐구. **교육학연구**, 41(3), 1-18.
- 이현림, 김순미 (2007). 중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지각된 부모 지지가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학회**, 26(3), 25-43.

- 이현림 · 손증하 · 김성자 · 김순미 (2007).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26(1), 46-56.
- 최윤희 (2011). 진로성격유형에 따른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Holland 진로 탐색검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서울: 한국교육평가원.
- Betz, N. E., Hammond, M. S., & Multon, K. D. (2005).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ive-level response continua for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131-149.
- Betz, N. E., & Hackett, G. (1986).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279-289.
- Betz, N. E., Klein, K., & Taylor, K.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o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 194-203.
- Goh, D. S., & Leong, F. T. L.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Holland's theory of vocational interests and Eysenck's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 555-562.
- Gottfredson, G. D., Jones, E. M., & Holland, J. L., (1993). Personality Vocational interests: The relation of Holland's six interest dimensions to five robust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518-524.
- Hartman, R. O., & Betz, N. E., (2007). The five-factor model and career self-efficacy: General and domain-specific relationship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 145-161.
- Hogan, R. (1983). Socioanalytic theory of personality. In M. M. Page (Ed.), *1982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ersonality-current theory of research (pp.55-89)*.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ogan, R., & Blake, R. J. (1996). Vocational Interests: Matching self-concept with the work environment. In K. R. Murphy (Eds.), *Individual Difference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 (pp.103-104)*.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Holland, J. L. (1985a).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 (1985b). *The self-directed search (rev. ed.)*.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lland, J. L. (1996). Exploring careers with a typology. *American Psychologist*, 51, 397-406.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Isaacson, L. E., & Brown, D. (2000).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7th ed.)*.

-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Kuder, G. F. (1965). *Manual for General Interest Survey*. Form E.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Lenox, R. A., & Subich, L. M.,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inventoried vocational interes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302-313.
- Logue, C. T. (2005).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s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A dissertation presented for the doctor of philosophy degree.
- Luzzo, D. A. (1993). Value of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4-198.
- Nauta, M. M. (2004). Self-efficacy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career interes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 381-394.
- Peraino, J. M., & Willerman, L. (1983). Personality correlates of occupational status according to Holland typ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268-277.
- Rottinghaus, P. J., Lindley, L. D., Green, M. A., & Borgen, F. H. (2002). Educational aspirations: The contribution of personality, self-efficacy, and interes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1-19.
- Schinka, J. A., Dye, D. A., & Curtiss, G. (1997). Correspondence between Five-Factor and RIASEC Model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 355-368.
- Schaub, M., & Tokar, D. M. (2005). The role of personality and learning experiences i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 304-325.
- Seligman, L. (1994). *Developmental career counseling and assess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harp, R. S. (199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olberg, V. S., Good, G. E., Fisc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Strong, E. K., Jr. (1943). *Vocational Interests of Men and Wome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K., & Betz, N.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okar, D. M., & Swanson, J. L. (1995). Evaluation of correspondence between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typology and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 355-368.
-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Pacific Grove, CA: Brooks & Cole.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iles for types of career exploration,
persona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Han Ik Jo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So Young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eer exploration profile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ypes of career exploration, personality factors(16PF),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lso, it investigated why each students carry different profiles from others. With six types of career exploration, Realistic,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and Conventional, they were interpreted by the combination of code 1, 2, or 3. However, when all of the six types were found out high or low, cluster analysis has been performed to see which types really were the ones, in case of students with multiple types. Moreover, the study also tried to find the group characteristics-which personality factor affecte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by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meaningful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five groups. I conducted the tests of career exploration, 16PF, and self-efficacy on 273 middle school students. With the result of tests, I organized the data, and did correlation studies, cluste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variance analysis, and post analysis using SPSS program. Five groups, defined by the profiles for different types of career exploration, were named accordingly: Multi-Interst, RIA salient, ASE salient, R salient, and Narrow-Inter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factors in the order of rule-consciousness, social boldness, and sensitivity between five profile groups. There were also meaningful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five groups.

Key words : types of career exploration, 16P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lusters